

# 일본 경제 동향\_2015년 10월

## ( 新아베노믹스 )

### < 목 차 >

<b>I. 일본 경제 지표</b>	<b>1</b>
<b>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</b>	<b>2</b>
1. 경기회복세 약화	2
2. 무역적자 축소 반전	6
3. 엔저약화·저주가·저금리	9
4.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지속	11
<b>III. 일본의 주요 정책</b>	<b>12</b>
1. 신 아베노믹스	12
2. TPP 타결에 따른 일본 공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	14
<b>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</b>	<b>18</b>
1. 9월 대일무역적자 확대 반전	18
2.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	21
<b>V. 참고 자료</b>	<b>22</b>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22
2. 주요 경제 일정	24

## 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	2013	2014	2014			2015				
				2/4	3/4	4/4	2/4	3/4	7월	8월	9월
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	-	-	-	-	-	-	-	113.1	112.2	-
GDP증가율(연율,%)		1.6	△0.1	△7.5	△1.3	1.3	-1.2(p)	-	-		
국내투자 (조엔)	민간설비투자	66.0	69.5	16.3	17.7	16.2	16.1	-	-		
	공공투자	23.0	24.5	4.2	5.2	7.3	4.7	-	-		
해외직접투자(조엔)		13.2	12.6	2.0	2.1	4.9	3.7	-	1.1	1.3	-
소비자물가	전기비	0.4	2.6	2.3	0.3	△0.1	0.2	-	0.0	0.0	-
상승율(%)	전년동기비	0.4	2.6	3.3	3.2	2.7	0.2	-	0.0	△0.1	-
실업율(%)		4.0	3.6	3.6	3.6	3.5	3.3	-	3.3	3.4	-
수출(조엔)		69.8	73.1	17.6	18.3	19.8	18.8	19.0	6.7	5.9	6.4
수입(조엔)		81.3	85.9	20.2	21.2	22.1	19.1	20.0	6.9	6.5	6.5
무역수지(조엔)		△11.5	△12.8	△2.6	△2.9	△2.3	△0.3	△1.0	△0.3	△0.6	△0.1
경상수지(조엔)		3.3	2.6	0.3	1.7	1.4	3.8	-	1.8	1.7	-
환율	달러	97.7	105.8	102.1	104.0	114.3	121.4	122.3	123.2	123.2	120.2
	원화(100엔)	1,123	996	1,008	987	950	905	957	927	958	986
금리(10년물,%)		0.72	0.55	0.60	0.53	0.44	0.40	0.395	0.44	0.38	0.36
주가(닛케이)		13,651	15,460	14,655	15,562	16,660	20,058	19,474	20,373	19,919	17,944

주: (p)는 2차 속보치 \*는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# □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약화

- '15.8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2.2로 전월비 0.9p 하락

### □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상승율 3개월 연속 제자리

- '15.8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0%

### □ (무역수지) 무역수지 1,145억 엔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 축소

- '15.9월 수출은 6조 4,174억 엔, 수입은 6조 5,318억 엔

### □ (환율) 엔저 약화

- '15.9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0.2 엔

\* '15.9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6원으로 전월비 2.9% 엔고·원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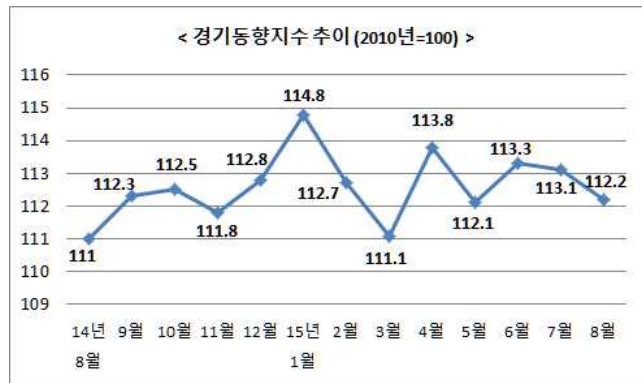
## 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### 1. 경기회복세 약화

#### □ (경기기조 판단)

○ 중국경제의 감속 등을 배경으로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전월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있음

- 일본 내각부가 10월 7일 발표한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)가 112.2로 2개월 연속 하락
- 일치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6개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, 광공업생산 등 생산관련지수의 하락폭이 확대



자료 : 내각부

- 경기동향지수보다 1주일 늦게 발표된 월례경제보고에서도 생산과 수출의 약세 등을 들어 1년 만에 경기판단을 하향수정
- 다만 9월의 실질수출(수출물량)은 증가로 반전

#### □ (전 망)

-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일본 내각부는 전월의 「완만한 회복」에서 「완만한 회복으로」로 하향 수정하는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감속 리스크를 지적
- 수개월 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1.5p 하락한 103.5로 2개월 연속 악화
- 이에 따라 2015년 3분기 GDP도 감소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
- 일본 정부·여당 내에서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, 추가 금융완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
-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기업수익과 고용의 호조가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에 얼마나 버티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경기향방에 관건

## <GDP>

### □ ‘15.3분기 GDP,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

- ‘15.2분기 GDP성장률은 -1.2%로 1분기의 4.5%에서 크게 반전,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
  - GDP의 60%를 점하는 개인소비와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이 주된 요인
  - 다만, 주택투자와 공공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마이너스 내수기여도 방어에 일조
- ‘15.2분기 GDP성장률이 공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3분기에는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면하고 경기후퇴국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감속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됨에 따라 3분기 GDP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수정, 마이너스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
  - 일본경제연구센터는 ‘15.3분기 실질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.67%에서 0.55%로 크게 하향 수정한 동시에, ‘15년도 실질 GDP성장률도 당초 1.11%에서 일본정부의 전망치 1.5%를 크게 하회하는 0.97%로 하향수정
  -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들도 0%대 성장,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가운데, 미즈호종합연구소의 경우 3분기 GDP성장률을 -0.2%로 전망
- ‘15. 3분기의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후퇴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이 높아짐

### 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3	2014	2014				2015	
		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(p)
전기비	1.6	△0.1	1.1	△2.0	△0.3	0.3	1.1	△0.3
<b>전기비연율</b>			<b>4.5</b>	<b>△7.6</b>	<b>△1.1</b>	<b>1.3</b>	<b>4.5</b>	<b>△1.2</b>
전년동기비			2.4	△0.4	△1.4	△1.0	△0.8	0.8

자료: 내각부, (p)는 2차 속보치

## <국내 투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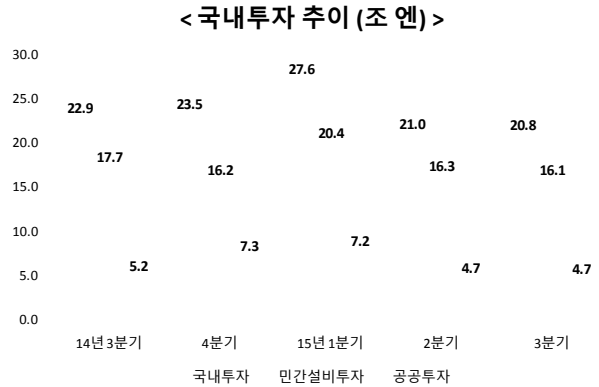
### □ ‘15.2분기 국내투자 실질, 명목 모두 감소

- ‘15.2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)는 전기비 실질 0.2% 감소, 명목기준으로는 24.6% 감소한 20.8조엔

### □ (민간설비투자)

- ‘15.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.5% 감소한 16.1조 엔, 국내 투자의 77.4%를 차지

- 최근에는 설비투자의 공급 측 통계인 8월 자본재 출하지수가 전월비 5.7% 감소



자료 : 내각부

- 일본은행 단관(단기관측, 9월 조사)등 에 의하면, 적어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업수익의 호조와 투자마인드 개선이 투자계획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
- 다만, ‘15.8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은 전월비 5.7% 감소, 3개월 연속 감소

### □ (공공투자)

- ‘15.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34.2% 감소한 4.7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2.6%를 차지
- ‘15.2분기에는 공공투자의 증가율이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내투자 증가에 기여
- 그러나 최근에는 9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이 전년동월비 10.9% 감소, 8월의 공공공사 수주액도 1.5% 감소하는 등, 국내투자 및 경기부양에 대한 공공투자의 기여도는 낮아질 전망

## 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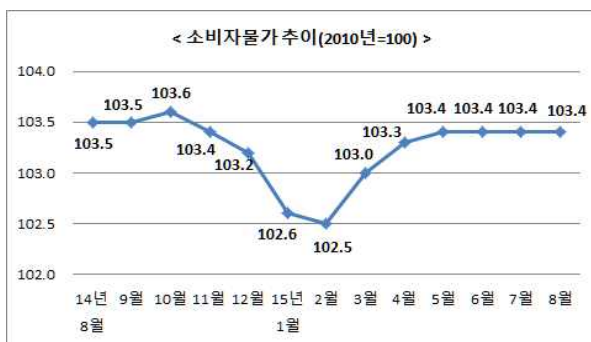
### □ '15.8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제자리걸음

- '15.8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전월과 같은 103.4로 3개월 연속 0.0%
  - 전년 동월 대비로는 -0.1%로,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한 2013년 4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
  - 중국경제의 감속을 배경으로 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과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한 반면, 식료품(생선·식품 제외)가격과 내구소비재 가격은 엔저영향으로 상승
- 일본은행은 2016년도 전반경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%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최근 유가하락폭이 예상보다 커, 2% 달성을 위한 추가금융 완화가능성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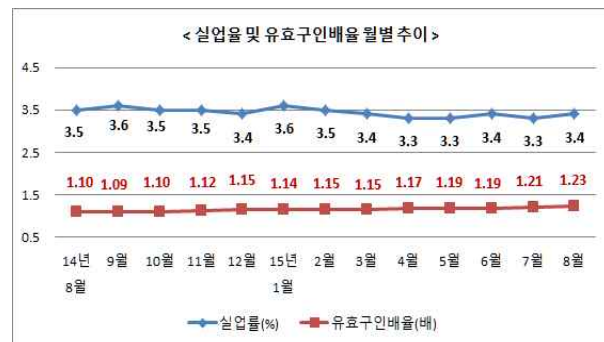
## <실업률>

### □ 실업률 상승에도 고용사정은 개선

- '15.8월 완전실업률은 3.4%로 전월보다 0.1%p 상승
  - 15-24세층의 완전실업률도 0.1%p 상승한 5.6%
- 유효구인배율 상승으로 고용사정은 개선경향
  - 15.8월 유효구인배율도 1.23으로 전월보다 0.02p 상승, 2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준



자료 : 총무성



자료 : 후생노동성

## 2. 무역적자 축소 반전

### □ (중 합) 무역적자 큰 폭 감소

- ‘15.9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1,145억 엔 적자로, 적자폭이 전월보다 4,549억 엔 축소
  - 전년동월비로도 8,474억 엔의 큰 폭으로 적자폭이 감소
  - 이와 같은 큰 폭의 적자폭 축소는 수출이 전월의 큰 폭 감소에서 큰 폭 증가로 반전된 반면, 수입은 유가하락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데 따른 것임
  -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,855억 엔에서 7,301억 엔으로 확대되었으나, 對 미국 무역흑자가 전월의 4,636억 엔에서 6,618억 엔으로 확대

< 2015년 9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수 출	5.9	3.1	-11.7	6.4	0.6	9.1	56.8	6.5
수 입	6.5	-3.1	-6.9	6.5	-11.1	1.3	59.5	-6.9
수 지	-0.6	-40.2	112.7	-0.1	-88.1	-80.0	-2.7	-62.0

자료 : 재무성

### □ (수 출) ‘15.9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 반전

- ‘15.9월 수출은 6조 4,174억 엔으로 전월의 -11.7% 감소에서 9.1%의 큰 폭 증가로 반전
  - 전년 동월비로는 0.6% 증가
  - 수출물량도 전월비 9.2% 증가, 전년 동월대비로는 3.9% 감소
- 앞으로 중국경제의 감속 등 리스크는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
-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자동차부품, 철강, 과학광학기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플라스틱 대신에 과학광학기기가 포함
  - 수출증가품목 중 자동차의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28.5%로 가장 큼

<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자동차	8,576	11.1	-21.4	11,018	7.6	28.5	86,925	9.5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390	3.9	-1.1	3,613	8.5	6.6	29,714	11.5
3	자동차부품	2,591	-2.0	-18.2	2,972	-1.3	14.7	25,863	1.6
4	철강	2,929	-8.2	-6.0	2,890	-17.0	-1.3	28,478	-2.4
5	과학광학기기	1,892	-7.4	-5.3	2,036	-4.9	7.6	17,746	0.8

자료 : 재무성

- 주요 수출상대 지역·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
- EU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14.6%로 가장 크고 이어 미국, ASEAN, 중국, 한국 순
-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3.9% 증가

<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미국	11,358	11.1	-15.3	12,790	10.4	12.6	112,921	15.5
2	중국	10,641	-4.6	-9.8	11,139	-3.5	4.7	98,308	1.0
3	ASEAN	9,076	2.0	-8.0	9,572	-0.6	5.5	88,174	9.2
4	EU	5,950	-0.2	-16.5	6,821	5.1	14.6	58,783	5.1
5	한국	4,193	-2.5	-7.1	4,357	-7.5	3.9	40,840	2.2
6	대만	3,691	8.8	-9.0	3,611	6.7	-2.2	33,616	8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'15.9월 수입도 금액·물량 모두 증가

- '15.9월 수입도 6조 5,318억 엔으로 전월비 1.3% 증가로 반전했으나 수출증가폭에는 크게 못 미침
-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으로 11.1% 감소
- 수입물량도 전월비 6.4% 증가, 전년 동월비로는 2.0% 감소



-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의류·동부속품, 통신기,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의약품 대신에 통신기가 포함
- 수입증가품목 중 통신기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03.7%로 가장 크고 이어 의류 동부속품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액화천연가스 순
- 5대 수입품목 중 유일하게 원유는 유가하락으로 수입이 감소

<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원유	7,649	-32.9	-13.3	6,376	-43.7	-16.6	64,695	107145
2	액화천연가스	4,150	-30.2	4.9	4,162	-32.4	0.3	43,671	57850
3	의류·동부속품	3,449	12.0	21.7	3,904	4.2	13.2	25,557	23930
4	통신기	1,747	42.0	-28.2	3,558	-6.5	103.7	21,212	18572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329	3.2	-12.1	2,582	0.0	10.9	22,495	2122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별로는 중국, 한국,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, EU, 미국,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
-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폭이 19.0%로 가장 큰 반면,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폭이 -12.2%로 가장 큼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4.2% 증가

<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중국	15,495	14.6	-6.2	18,439	0.9	19.0	128,252	-7.7
2	ASEAN	9,342	0.3	-10.3	9,715	-4.2	4.0	79,711	-12.3
3	EU	7,685	21.8	-2.8	6,748	-3.5	-12.2	54,875	-9.6
4	미국	6,722	5.4	-3.1	6,172	-0.1	-8.2	48,171	-13.8
5	호주	3,484	-16.5	-3.6	3,243	-22.8	-7.0	28,850	-24.3
8	한국	2,510	-4.1	-9.3	2,615	-8.7	4.2	21,939	-15.9

자료 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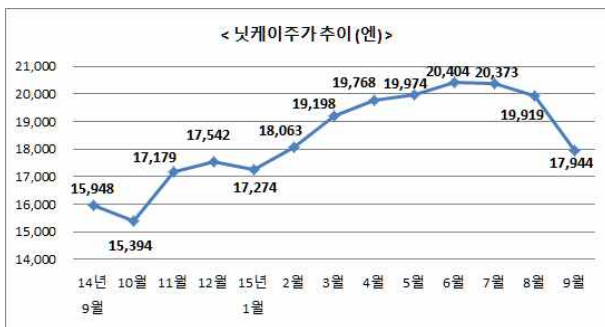
### 3.엔저약화 · 저주가 · 저금리

#### 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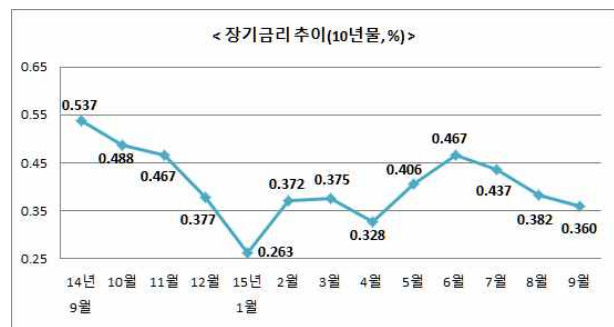
- ‘15.9월 평균 주가는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전월비 10% 하락한 17,944엔
- 10월 들어서는 미국 주가의 반발 등으로 반등, 10월 21일 기준 18,554엔

#### □ (금 리)

- ‘15.9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하락 영향으로 전월비 5.3% 하락한 0.36%
- 10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10월 21일 기준 0.315%까지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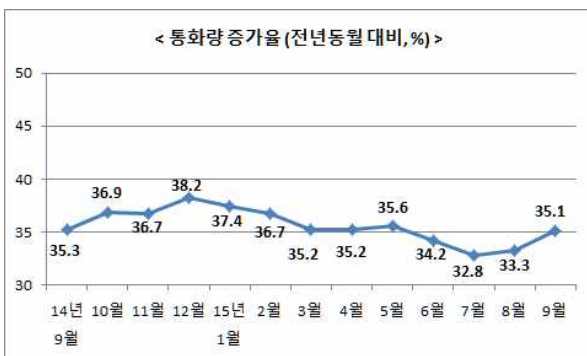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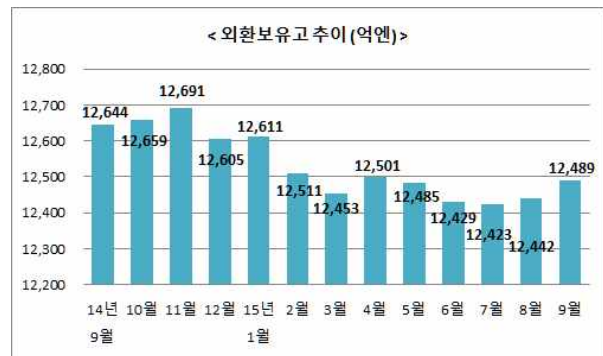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#### □ (통화량)

- ‘15.9월 본원통화(머니터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.1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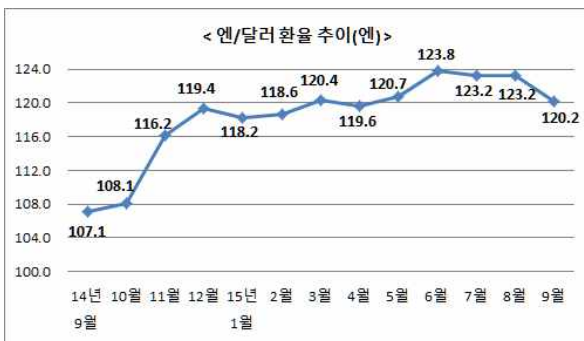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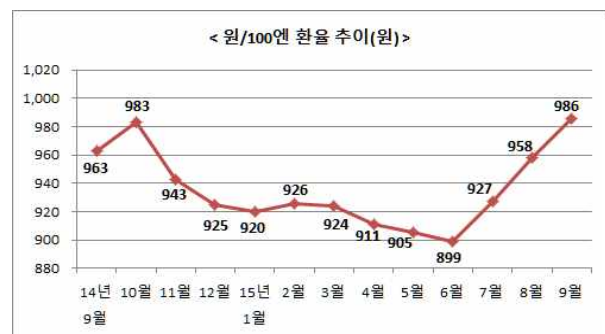
자료 : 재무성

## □ (환 율)

- ‘15.9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.4% 하락한 120.2엔(엔고)
  - 10월 들어서도 미국의 주가상승과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엔저세가 약화, 9월 21일 기준 119.90엔
- 당분간은 미·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(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,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),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는 유지될 전망
  -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(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, 달러당 약 100엔)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·조정 가능성이 큼
- ‘15.9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6원으로 전월의 958원에 비하여 2.9% 엔고·원저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#### 4.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지속

□ **(동향)** 對미국 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 유지

○ ‘15년 8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3,457억 엔으로 전월비 18.1% 증가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	2013	2014	2015					
			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금 액		131,946	125,929	9,244	10,023	20,757	6,223	11,399	13,457
증가율	전기비	34.9	-4.6	-33.2	8.4	107.1	-70.0	83.2	18.1
	전년동기비	34.9	-4.6	28.2	-51.3	177.1	-11.4	39.6	112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**(지역별)** 북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,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

○ 對 미국 직접투자의 증가폭이 전월비 361.4%로 가장 큼

○ 반면 유럽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의 감소폭은 -50.8%

○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6% 감소

- 對 한국 직접투자의 감소폭이 -83.4%로 가장 큼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%)>

	2014년		2015.7월			2015.8월	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25,939	-4.6	11,399	83.2	39.6	13,457	18.1	112.5
아시아	37,617	-4.3	4,529	78.2	54.1	4,256	-6.0	74.6
중 국	7,150	-19.3	766	-21.3	67.6	651	-15.0	27.9
한 국	3,328	3.7	445	8.0	-1.8	74	-83.4	-72.3
북 미	46,264	1.2	1,176	-	-	5,498	367.5	157.2
미 국	44,365	3.3	1,143	-	-	5,274	361.4	187.1
중남미	7,710	-22.1	1,169	34.8	220.3	1,415	21.0	41.1
유럽	26,310	-16.7	3,909	57.2	42.4	1,922	-50.8	170.7
대양주	5,963	1.2	262	-6.4	95.5	300	14.5	-
중동	527	-	98	-16.2	53.1	97	-1.0	273.1
아프리카	1,539	205.4	256	349.1	20.8	-30	-	-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**(특이점)**

○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&A가 가속화, 8월 20일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77% 증가한 7조 1,685억 엔으로 연간 과거 최고였던 2012년을 상회

-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&A가 증가

### 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#### 1. 신 아베노믹스

- 2015년9월24일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제2단계로서, 1억 인구가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「1억총 활약」 사회의 실현을 위한 『새로운 3개의 화살』을 발표
- 아베 총리는 10월7일 개각을 단행하고, 「1억총 활약」 사회 실현을 위해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긴급대책을 책정한 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표명

##### ① 배경

- 아베노믹스에 대해 시장과 기업이 가장 기대했던 성장전략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
- 이에 새로운 3개의 화살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들의 참여확대를 통한 1억 명의 노동력에 의한 성장잠재력 강화와 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
- 아소 재무상은 9월25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3개의 화살가운데 하나인 「강한 경제」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3가지가 집약된 것이라고 설명
  - 금융완화 등 종래의 3개의 화살은 강한 경제에 포함된 것으로, 경제재생을 위한 대응은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

##### ② 주요 내용

- 3개의 화살 중 첫 번째가 바로 「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」로서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일본 내각부 시산에 따르면 앞으로 연평균 3% 후반대의 명목성장을 계속하는 경우 2021년 하반기에는 이 같은 목표달성이 가능
  - 과거 10년간 연평균 명목성장이 마이너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, 대폭적인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한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음
- 두 번째 화살로는 「꿈을 이어가는 육아 지원」을 제시

- 출생률 1.8명을 실현하기 위해, 대기아동 제로 실현,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, 다자녀 세대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등 육아환경 개선 등을 제시
- 현재 낮은 급여수준 등을 이유로 보육사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, 또 맞벌이 세대의 증가 등에 따른 수요확대에 보육소의 정원증가가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
- 세 번째 화살로는 「안심한 사회보장」을 제시
  - 간병이직제도를 목표로 일과 간병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를 본격적으로 구축
  - 의욕 있는 고령자가 경제사회의 담당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「생애현역사회」를 구축
  - 현재 간병을 이유로 이직자 수가 근년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바, 보육사의 소득 향상, 정원 확충, 간병 분야의 지원체제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

### ③ 평가

- 최근 중국경제의 감속영향으로 일본경제가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해있을 가능성도 지적되는 가운데 제 2단계 아베노믹스 출발점에서부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음
- 새로운 3개의 화살인 강한 경제, 육아지원, 사회보장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라기보다는 정책목표라는 지적임
- 신 아베노믹스의 내용 중 최대 관심 포인트는 600조엔의 명목 GDP 달성과 재정건전화를 양립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임
  -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 같은 목표달성에는 적어도 10년 걸린다는 견해도 있음
  - 신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여 일본경제의 파이를 크게 하려는 발상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
  - 인구감소율이 계속되는 가운데, 일본경제의 잠재성장율은 불과 0%대 전반 또는 중반 정도로,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급선무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임

- 따라서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
  - TPP 타결의 추진력으로 농·어업과 노동 등 암반규제의 개혁을 추진하여 가일층의 기업지배구조 개혁, 법인세실효세율의 20%대 인하 로드맵 준비 등의 기본전략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
- 동시에 선진국 중 최악인 재정을 재건해야 한다는 지적
  - 이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확보와 의료 등 효율적인 사회보장을 병행할 필요
  - 그동안 금융완화로 일본은행이 시장으로부터 국채를 대량 구입하여 이미 전체의 3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, 앞으로 이와 같은 비상시의 정책을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

## 2. TPP 타결에 따른 일본 공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

- TPP 타결에 따라 역내 관세철폐, 규칙정비 등으로 역내시장 접근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, 이것이 일본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역내수출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

### Ⅰ 對 역내국 수출의 관세장벽 철폐

- TPP 타결에 따라 일본의 11개 TPP수출국에 대한 수출(약 19조엔)의 99.9%에 관세가 철폐
  - 이중 즉시철폐 비율은 76.6%
- (1) 對 미국 수출
  - 對 미국 공산품 수출(약 10조엔)의 100%에 대해 관세가 철폐
  - 자동차 부품(현행 세율, 주로 2.5%)에 대해서는 80% 이상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(한미 FTA를 상회하는 수준)
    - 즉시 철폐율
      - 미·일(TPP) : 품목 수 87.4%, 수출액 81.3%
      - 한·미 FTA : 품목 수 83%, 수출액 77.5%

- 승용차(현행 세율, 2.5%)에 대해서는 발효 후 15년 후부터 인하 개시, 20년 후부터 반감, 22년 후 0.5%까지 인하, 25년 후부터 완전철폐(TPP 전체로 최장 관세철폐 기간은 30년)
- 가전, 산업기계,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액의 99% 이상에 대해 즉시 철폐
  - (예) 가전 :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관세가(현행세율 2.1%) 즉시 철폐
  - 화학 : 플라스틱제품(현행세율 2.1%-6.5%)를 즉시 철폐
- 섬유·도자기 등, 지방중소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
  - (예) 도자기 : 對 미국 수출액의 75%에 대해 즉시철폐
  - 수건 : 미국의 현행세율 9.1%를 5년 후 철폐

## (2) 캐나다

- 對 캐나다 공산품 수출액(약 1조엔의 100%에 대해 관세철폐)
- 승용차(현행세율 6.1%)에 대해서는 5년 후 철폐
  - 캐나다·EU FTA의 8년 후 철폐를 상회하는 수준
- 자동차 부품(현행세율, 주로 6%)에 대해서는 대일수입의 90%에 대해 즉시 철폐
  - 즉시 철폐율
    - 일본·캐나다 (TPP) : 품목 수, 95.4%, 무역액, 87.5%
    - 한국·캐나다 FTA : 품목 수, 72.2%, 무역액, 59.1%
- 화학, 가전, 산업용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출액의 99% 이상이 즉시철폐

## (3) 뉴질랜드

- 對 뉴질랜드 공산품 수출액의 99%이상에 즉시철폐, 나머지도 발효후 7년째까지는 완전무세화



#### (4) 호주

- 對 호주 공산품 수출액의 94.2%에 대해 즉시철폐
  - 일·호 FTA를 상회하는 수준
- 對 호주 수출의 50%를 점하는 승용차, 버스, 트럭(현행세율 5%)의 신차는 수출액 100%에 대해 즉시철폐
  - 일·호 FTA(수출액의 75%가 즉시철폐)를 상회하는 수준

#### (5) 베트남(일·베트남 FTA:2009년 10월1일 발효)

- 일본기업들이 큰 수출관심을 보이고 있는 3,000cc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발효후 10년째부터 철폐
  - 70% 이하의 고율관세로 보호(일·베트남 FTA에서는 관세철폐대상이 아님)

### ② 원산지 규칙 통일 등에 의한 對 역내국시장 접근성 개선

#### (1) 원산지 규칙의 통일

- TPP특혜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12개 국내 원산지규칙의 통일(사업자의 이용부담 완화)

#### (2) 완전누적제도

- 다수의 체약국별로 부가가치·가공공정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완전누적제도를 채택

#### (3) 자동차의 원산지 규칙

- 자동차의 원산지규칙에 대해서는 일본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현재 서플라이체인 하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

##### ① 완성차의 원산지규칙

- 완성차에 대해서는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5%
- 이 경우 특정 부품 7개 품목(유리, 보통차용 차체, 트럭용 차체, 부분품을 제외한 범퍼, 차체부분품, 차축)에 대해서는 협정상 명기된 가공공정 중(사출성형, 단조, 금속형성 등) 어느 하나라도 TPP 역내에서 실행되는 경우 원산성이 부여되는 제도를 도입

## ② 자동차부품의 원산지 규칙

-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관세분류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로서,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45%-55%
- 이와 같은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 45%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구성부품에 대해 협정상 명기된 가공 공정 중 어느 하나라도 TPP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성이 부여되는 제도를 도입

## ③ 역내시장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

- TPP 타결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일본산 공산품의 수출시장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미국 등 11개 역내국가에서의 수출경쟁력이 강화
- TPP 타결에 따라 일본의 전체 수출품목수의 87%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
- 일본이 수출하는 공업제품은 전부 약 6,500개 품목 금액기준으로 보면 가전, 산업기계, 화학제품 등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도 포함하여 수출총액에서 점하는 즉시철폐분의 비율은 77%에 달함
- TPP 타결에 따른 일본제품의 수출시장접근 개선은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전망
- 이에 따라 현재 수출채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기업행동 변화, 자본재·중간재 수출의 부진, 생산의 현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
- 일본정부는 상세한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식으로 시산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나, 일본이 TPP교섭에 참가한 2013년 시점에서는 관세철폐에 의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 등으로 실질 GDP가 약 3.2조엔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

## 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### 1. 9월 대일 무역적자 확대 반전

#### □ (총 합)

- ‘15.9월 대일무역적자는 8월보다 96백만 달러 증가한 1,662백만 달러
  - 대일 수출의 증가 반전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 기인
-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.8%에서 4.7%로 저하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9.9%에서 10.7%로 상승
 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.2%에서 7.3%로 상승

< 2015년 9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대일 수출	1,898	-24.7	-11.7	2,043	-24.4	7.6	19,374	-20.6
대일 수입	3,464	-17.9	-12.3	3,705	-21.1	7.0	34,954	-13.4
무역 수지	-1,566	-131	-233	-1,662	-330	96	-15,580	-364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#### □ (대일 수출)

- ‘15. 9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7.6% 증가, 전월의 11.7% 감소에서 크게 반전
  - 그러나 총수출의 증가율 12%에 비하여 증가폭이 적음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
2015. 8월	-24.7	-11.7	-14.9	-14.2	-3.1	-6.9
2015. 9월	-24.4	7.6	-8.4	12.0	-11.1	1.3
2015.1-9월	-20.6	-	-6.6	-	-6.9	-

- ‘15. 9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금속광물, 정밀화학제품,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증가
- 산업용전자제품과 수송기계가 20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, 기계요소공구·금형도 10%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수출 감소폭이 -9.6%로 가장 큼

< 2015년 9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	총계	1,898	-24.7	-11.7	2,043	-24.4	7.6	19,374	-20.6
1	광물성연료	288	-50.1	18.5	308	-50.3	6.9	2,661	-47.8
2	철강제품	238	-23.8	-1.4	247	-22.5	3.8	2,235	-27.6
3	전자부품	186	2.7	-11.4	180	-4.3	-3.2	1,744	-3.3
4	정밀화학제품	127	14.2	4.0	122	-4.5	-4.0	1,087	-4.4
5	산업용전자제품	88	-46.0	-29.6	112	-43.4	27.3	1,779	-11.5
6	석유화학제품	92	-32.3	-30.3	101	-23.7	9.8	1,033	-17.2
7	수송기계	81	-11.5	-33.6	100	2.3	23.5	903	-5.1
8	금속광물	104	7.8	23.8	94	-16.7	-9.6	799	-3.5
9	기계요소공구·금형	70	-19.2	-21.3	80	-8.9	14.3	710	-16.6
10	농산물	73	-16.8	-12.0	74	-11.2	1.4	733	-10.3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□ (대일 수입)

- '15. 9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7% 증가, 전월의 12.3% 감소에서 크게 반전
  -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중 총수입의 1.1% 감소와는 대조적으로, 대일수입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짐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월비	전년동기비	전월비
2015. 8월	-17.9	-12.3	-18.3	-10.0
2015. 9월	-21.1	7.0	-21.8	-1.1
2015.1-9월	-13.4	-	-16.5	-

- '15. 9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정밀기계, 석유화학제품,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
  - 수송기계의 증가폭이 35.2%로 가장 크고, 이어 산업기계, 산업용전자제품, 기초산업 기계도 20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
  -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수입 감소폭이 -12.1%로 가장 큼

### < 2015년 9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8월			2015.9월			2015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
	총 계	3,464	-17.9	-12.3	3,705	-21.1	7.0	34,954	-13.4
1	전자부품	503	-7.1	-2.3	590	-4.6	17.3	4,637	0.4
2	철강제품	449	-32.6	-3.2	430	-39.2	-4.2	4,448	-30.2
3	석유화학제품	364	-29.2	-15.5	347	-42.4	-4.7	3,724	-18.7
4	정밀화학제품	299	-8.5	-4.5	313	-11.6	4.7	2,856	-12.1
5	기초산업기계	223	-19.9	-25.2	273	-7.5	22.4	2,363	-10.4
6	산업용전자제품	182	-7.7	-14.2	223	2.0	22.5	1,931	-10.3
7	수송기계	159	-21.2	-25.0	215	-1.0	35.2	1,848	-1.1
8	플라스틱제품	182	-20.6	-8.1	190	-21.1	4.4	1,761	-18.6
9	산업기계	132	-28.0	-32.0	167	-16.3	26.5	1,535	-15.0
10	정밀기계	173	9.5	-29.1	152	-12.4	-12.1	2,061	14.4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2.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

### □ (동 향) ‘15.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의 감소로 반전

- ‘15.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222백만 달러로 전기비 67.5% 감소
 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7.2%를 크게 상회
  - ‘15.1-3분기 누계로도 전년동기비 27% 감소
  - 건수로도 전기비 20.2% 감소
  - 전분기의 급증(136.7%)반작용도 급감 반전에 영향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3년		2014		2014.4분기		2015.2분기		2015.3분기		2015.1-3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352 (21.3)	2,488 (-7.5)	103 (45.1)	850 (73.8)	84 (-0.2)	684 (136.7)	67 (-20.2)	222 (-67.5)	236 (-5.2)	1,195 (-27.0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2,463 (-5.6)	19,003 (30.6)	746 (32.5)	4,185 (-6.7)	742 (33.0)	5,316 (49.5)	624 (-15.9)	4,399 (-17.2)	1,924 (12.1)	13,270 (-11.1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### □ (한·일 기업간 협력 사례)

- 일본 테이진그룹이 1600만 달러를 증액투자, 아산시에 위치한 공장 부지에 2차전지 분리막 특수코팅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, 무로후시제작소도 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5외투단지에 4960㎡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
  - 이들 기업의 추가 투자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직접고용 170명, 매출 7,400억원, 수입대체 2,200억원, 생산유발 2,900억원 예상(2015.10.14. 중도일보)

### □ (시사점)

-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
  -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

## V. 참고 자료

### 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5.9월~2015.10월)

#### □ 국내 기관

- 『TPP,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』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5년10월14일  
[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view/board\\_id/2307/page/](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view/board_id/2307/page/)
- 『TPP 타결이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5년 10월13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520&no=43527>
- 『TPP협상의 타결과 한국의 대응』 외교안보연구소, 2015년10월12일  
<http://www.ifans.go.kr/knda/ifans/kor/act/ActivityView.do>
- 『TPP, 미국 주도 경제 질서 부활의 신호탄』 LG경제연구원, 2015년 10월12일  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97>
- 『[동향분석]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』 한국은행, 2015년 10월7일  
<http://www.bok.or.kr/broadcast.action?menuNaviId=2229>
- 『TPP가 섬유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』 국제무역연구원, 2015년 10월6일  
[http://iit.kita.net/newtri2/report/iitreporter\\_view.jsp?pageNum=1&nGubun=7&s\\_con=&s\\_text=&sStartDt=&sEndDt=&sOrder=DESC&sClassification=7&actionName=&sNo=1370](http://iit.kita.net/newtri2/report/iitreporter_view.jsp?pageNum=1&nGubun=7&s_con=&s_text=&sStartDt=&sEndDt=&sOrder=DESC&sClassification=7&actionName=&sNo=1370)
- 『제조업계의 은둔자, 日 화낙의 성공 비결 - 기술 부문에서 완벽주의 추구』 포스코 경영연구원, 2015년 9월30일  
[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view/board\\_id/2304/page/](https://www.posri.re.kr/report/view/board_id/2304/page/)
- 『일본 기업의 중국 및 동남아 전략 재조정』 LG경제연구원, 2015년 9월30일  
[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contents.asp?pyear=2015&ctype=g&grouping\\_seq=01040200\\_500](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contents.asp?pyear=2015&ctype=g&grouping_seq=01040200_500)
- 『한국기업의 일본소비재시장 진출전략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5년 9월25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520>

## □ 일본 기관

- 『성장전략에 필요한 TPP : 체결 후 청사진과 일본의 과제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2015년 10월22일  
<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pdf/macro/2015/naga20151021tpp.pdf>
- 『TPP 협정에 의한 일본 공업제품의 시장접근개선내용』 경제산업성 TPP대책본부, 2015년 10월 16일  
[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external\\_economy/tpp/pdf/001\\_03\\_00.pdf](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external_economy/tpp/pdf/001_03_00.pdf)
- 『신 3개의 화살 : 1억층 활약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』 닛세이 기초연구소, 2015년 10월2일  
<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letter/2015/letter150930.html>
- 『일본산업의 동향 : 향후 10년 주목해야할 외부환경 변화』 미즈호은행, 2015년 9월30일  
<http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sangyou/m1052.html>
- 『일본무역의 현황 2015』 일본무역회, 2015년 9월30일  
<http://www.jftc.or.jp/research/index.html>
- 『일본의 서비스 수출의 특징과 과제』 미쯔비시 리서치·컨설팅, 2015년 9월25일  
[http://www.murc.jp/thinktank/economy/analysis/tenbou/tenbou\\_150924.pdf](http://www.murc.jp/thinktank/economy/analysis/tenbou/tenbou_150924.pdf)
- 『무역수지 구조로 본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』 일본 국회도서관, 2015년 9월25일  
[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\\_9497210\\_po\\_077602.pdf?contentNo=1](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9497210_po_077602.pdf?contentNo=1)



## 2. 주요 경제 일정

### <10월 실적>

일자	주요내용
1	• TPP 각료회의(아틀란타)
	• 9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(일본은행)
	• 스포츠청 발족
2	• 8월 유효구인배율(후생노동성)
5	• TPP 체결 합의
	• 마이넘버 '통지카드' 발송 스타트
	• G20 통상장관회의(이스탄불)
6	• 금융정책회의(일본)
7	• 아베 내각개편(3차)
	• 8월 경기동향지수(내각부)
8	• 8월 국제수지(재무성)
14	• 10월 월례경제보고(내각부)
20	• 한일 국방장관회의(서울)
	• TPP 교섭결과 설명회(도쿄)
21	• 9월 무역통계속보(재무성)
22	• 한일 특허청장회의(서울)
	• 아베 총리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
26~27	• 한일재계회의(도쿄)
29~30	• 한일/일한재단 연락협의회 간사회(서울)
30	• 한일통상장관회의(서울)

### <11월 예정>

일자	주요내용
2	• 한일정상회담(서울)
15	• G20 정상회의(터키)
17	• APEC정상회의(필리핀)